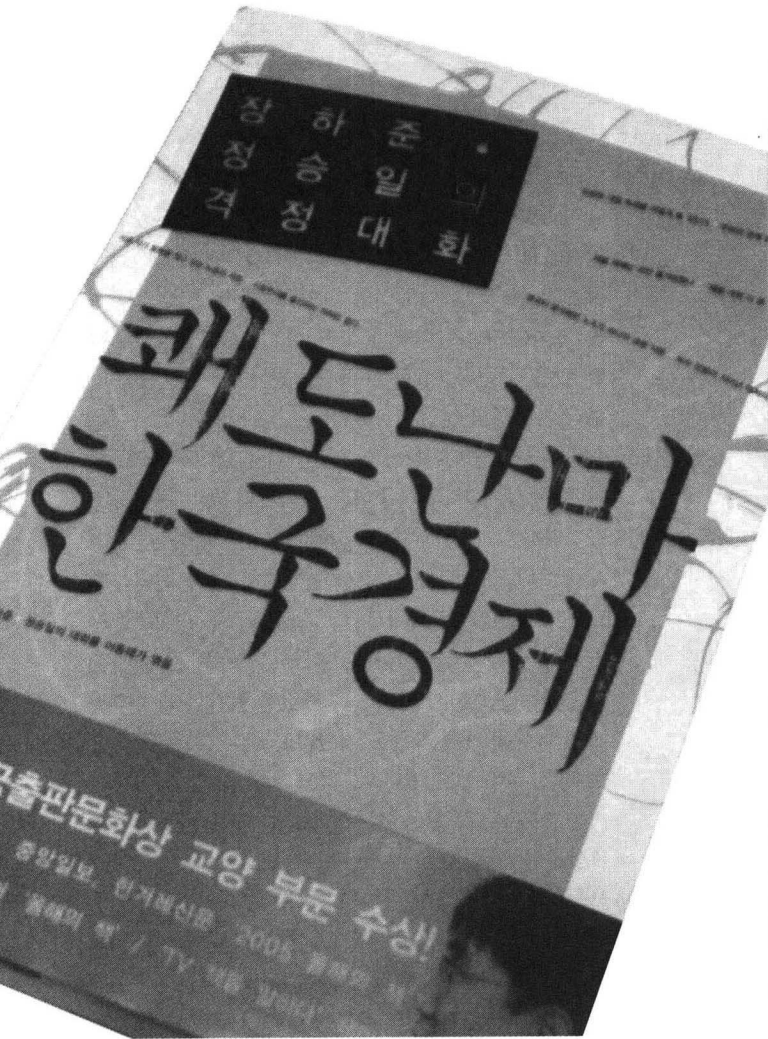


비관이라는 색안경 끼고 밝은 면 외면

장하준 · 정승일 대담집
《쾌도난마 한국경제》



《쾌도난마 한국경제》 장하준 · 정승일 대담 | 이종태 엮음 | 240쪽 | 부키 | 값 9,800원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경제학교수인 장하준과 국민대학 겸임교수인 정승일의 대화를 언론인 이종태가 엮은 《쾌도난마 한국경제》라는 책은 지난해에 현직 대통령이 중앙일간지 경제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거론함으로써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국가경제를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직접 거론했다는 사실은 이 책이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뜻할 것이다. 그래서 나도 이 책을 읽어봤다. 이제부터 대통령이 언급할 정도로 과연 그 가치가 충분한지 살펴보도록 하자. 미리 한 마디 해두자면, 이런 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 자가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한, 현재와 같은 경제난은 쉽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사실이다. 설령 운이 좋아서 일시적으로 호전되더라도 조만간 더욱 악화시키고 말 것 같아 걱정이다.

도입 부문부터가 눈에 거슬린다. 엮음이 이종태는 “겉으로 보기에 한국 사회는 꽤나 번영을 누리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들이 거리를 헤매고, 3,40대 직장인들조차 실업의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월급쟁이로 먹고살기가 힘들어지면서 자영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상당히 늘었지만, 이 또한 예전 같지 않아 오히려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라고 시작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비관’이라는 새까만 색안경을 끼고 우리 사회를 바라본 것이다. 세상사에는 어두운 면이 있으면 반드시 밝은 면도 있는 법인데, 왜 밝은 면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것일까? 이 세상은 불완전한 인간이 사는 곳인 만큼 불완전하다고 해야 할 터인데, 왜 절대적인 기준으로만 보려고 했을까? 장하준은 “이승엽이 매 타석 홈런 칠니까? 이승엽이 삼진 당한 것만 모아 TV에 보여주면 ‘저 XX 엄청 못 치네.’ 할 것 아닙니까.”(23쪽)라고 비유하면서도, 왜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이런 시각을 갖지 못한 것일까?

이종태는 “저는 이 같은 일들이 근대화 이후 우리 경제의 역사에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997년말의 외환위기와 김대중 대통령의 개혁 이후 발생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두 분께서는 그에 대해 일찍부터 분석해오셨고, 또 경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들은 현재 실제로 들어맞고 있고요. 이런 대화자리를 마련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라고 말하여 장하성과 정승일의 대화를 유도한다. 마치 현재의 경제적 상황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개혁에 의해 빚어진 현상처럼 언급한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개혁을 해야만 했던 이유는 왜 그들은 따져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 이 글을 쓴 최용식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5년간 대한투자진흥공사에서 근무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과학적으로 해체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세우겠다는 뜻을 품고 직장을 그만둔 뒤 30년 넘게 이 문제에 천착했다. 현재 21세기경제학연구소www.taeri.org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 작업을 하고 있으며 쓴 책으로는 《사상과 경제학의 위기》 《경제역적들이 들어라》 《대한민국 생존의 속도》 《대한민국 생존의 경제학》 등이 있다.

만약 개혁을 하지 않았다더라면 외환위기는 어디까지 진행했을까? 아르헨티나처럼 수십 년 동안 경제난이 지속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는 왜 그가 눈을 감아버렸을까? 외환위기가 얼마나 치유가 어렵고, 얼마나 악질적인 경제재앙인가조차 모르는 사람이 과연 경제 문제를 언급할 자격이 있을까? 혹시 외환위기를 빠르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가장 성공적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사실을 그들은 모른다는 말일까? 영국이 1976년 말 외환위기를 겪은 뒤,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던가를 정녕 모른다는 말일까? 영국조차 외환위기 극복에 10여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비록 석유과동이 겹치기는 했지만 실업률과 물가의 상승률이 두 자리 수를 수년간 웃돌기도 했다. 또한 철강산업, 조선산업, 자동차산업 등 거의 모든 국가 기간산업이 초토화되었으며, 그밖에 쓸 만한 기업도 대부분 외국인 손에 넘어갔다.

장하준은 여기에 한술을 더 뜬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정책을 이끌어온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박정희 모델을 ‘수출 의존형’ 또는 ‘대의 의존형’ 등으로 비판하며 경제개혁을 부르짖던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의존은 더욱 심화되고 말았습니다.”(14쪽)라고 말한다. 그러나 대외의존은 외환위기 이후에 꾸준히 높아진 것이 아니다. 2003년 이후에야 나타난 일이다. 수출증가율이 2003년과 2004년을 제외하고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낮다는 사실은 아래 표가 증명해준다. 그렇다면 대외의존 심화는 최소한 김대중 정부의 개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해야 한다. 장하준은 기초적인 통계조차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통계조차 보지 않는 자가 어떻게 경제학자라고 자처할 수 있을까? 통계도 없이 어떻게 경제문제를 논할 수 있을까? 이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김대중 정부를 여기에 끌어들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장하준은 “예전에는 수출이 잘 되면 이게 투자를 유발하고, 투자는 고용 및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수요가 활성화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출과 내수가 양극화 되어 버렸어요.” “옛날 모델이 종속적이라고 비판해 온 분들이 우리 경제를 더 종속적인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15쪽)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참여 정부 출범이후 지난 2년 동안에 대외종속이 특별하게 심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수출은 호조인데 내수는 부진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수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소비와 투자가 부진했기 때

문이다. 그렇다면 소비와 투자는 왜 부진했을까?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경제학자의 참다운 자세일 것이다. 경제학은 소득이 소비를 규제한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소득은 증가했지만 민간소비는 감소했다. 이것은 세계 경제사를 두루 둘러봐도 좀처럼 발견할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다. 또한 경제학은 기업의 이익규모가 투자를 규제한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누렸지만 투자는 극히 부진했다. 이것 역시 세계 경제사를 아무리 뒤적여 봐도 좀처럼 찾기 어려운 특이한 현상이다. 따라서 경제학자라면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먼저 기울였어야 한다. 소득이 증가해도 소비가 감소하고, 기업이이익이 사상최대를 기록해도 투자가 부진했던 이유는 다른 데에 있다. 즉, 우리 경제의 분위기가 극도로 비관적이었기 때문인 것이다. 국가경제의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도 비관적이라는데, 소비자가 어떻게 함부로 지갑을 열 수 있겠으며, 기업이 어떻게 위험한 투자를 감행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장하준과 정승일과 같은 경제학자들 때문에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이 심화되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장하준이 찾아낸 원인은 고작 “최근의 현상은 한국경제가 신자유주의적 구조로 바뀐 결과입니다.(16쪽)”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신자유주의적 구조가 왜 이런 ‘종속적 현상’을 빚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의 기본 특징이 바로 저투자, 저성장, 고용불안이에요.”(16쪽)라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의 기본특징이 진짜로 저투자, 저성장, 고용불안일까?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펼쳤던 미국과 영국은 그렇지 않은 일본과 독일에 비해 성장률이 훨씬 높고 실업률은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일본에 밀렸었고, 영국은 독일에 뒤쳐졌었는데, 그 뒤로는 형세가 왜 이렇게 역전되었을까? 10여 년 동안 장기불황에 시달리던 일본경제가 최근에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뒤부터 다시 살아나고 있는 현실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 최근에는 독일과 프랑스가 사민주의를 포기하고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 더 이상 언급해서 무얼 하겠는가. 이쯤에서 마무리하기로 하자. **▶**